경북 경제동향

GyeongSangBuk-Do Economic Trends

2021. 05

경제동향 개관

경기, 생산, 소비, 투자, 건설, 교역, 고용, 물가, 금융, 부동산, 중소기업

BIG DATA

이달의 키워드 및 이슈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대구경북연구원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GyeongSangBuk-Do Economic Trends

경북경제동향

2021. 05

경북경제동향 개관 3

1. 경기 9
2. 생산 11
3. 소비 14
4. 투자 16
5. 건설 17
6. 교역 19
7. 고용 20
8. 물가 23
9. 금융 24
10. 부동산 26
11. 중소기업 29

BIG DATA 30

1. 이달의 키워드 30
2. 이달의 이슈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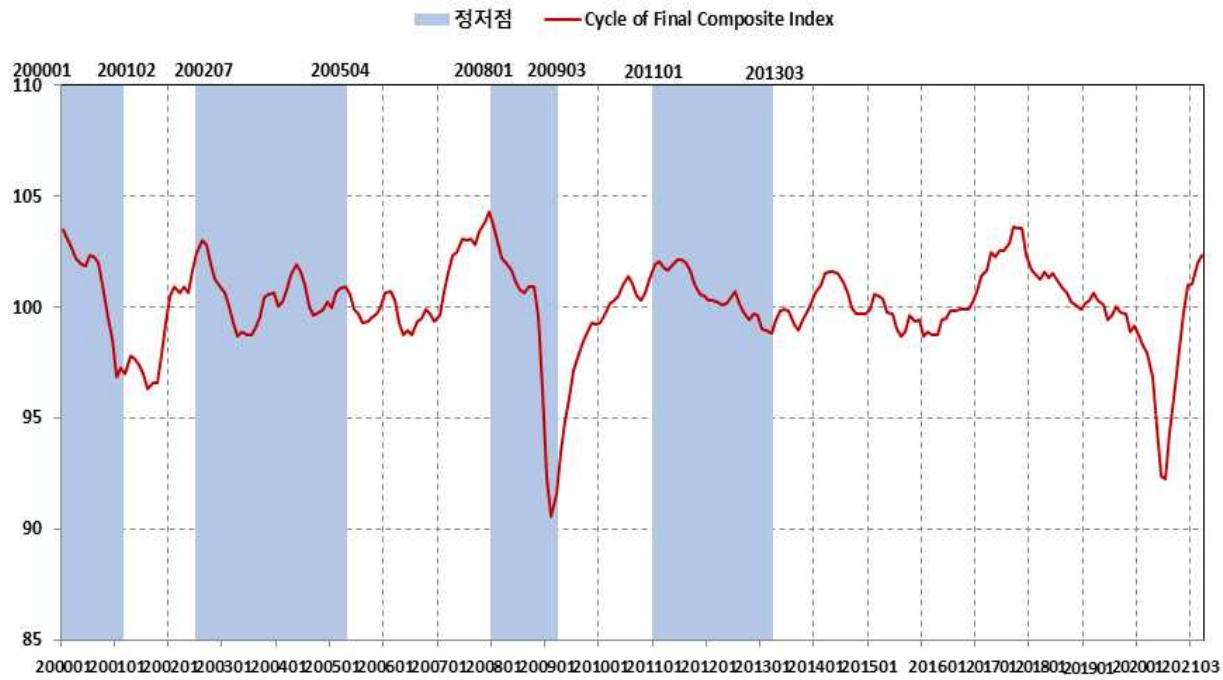
경북경제동향 개관



구 분	항 목	기준월
경 기	경기종합지수	21.03
	BSI	21.05
생 산	광공업생산지수(생산, 출하, 재고)	21.04
	서비스업생산지수	
소 비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21.04
	신용카드사용액	21.02
투 자	자본재수입액	21.04
건 설	건축허가면적	21.04
	건축착공면적	
	건설수주액	
교 역	수출액	21.04
	수입액	
고 용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21.04
	고용률 / 실업률	
	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물 가	소비자물가지수	21.05
	생활물가지수	
금 융	가계대출액	21.03
	주택담보대출액	
	기업대출액	
부 동 산	주택가격지수	21.05
	아파트가격지수	
	주택매매거래량	21.04
중소기업	어음부도율	21.04
	부도업체수	
	신설법인	21.03

경제지표별 순환변동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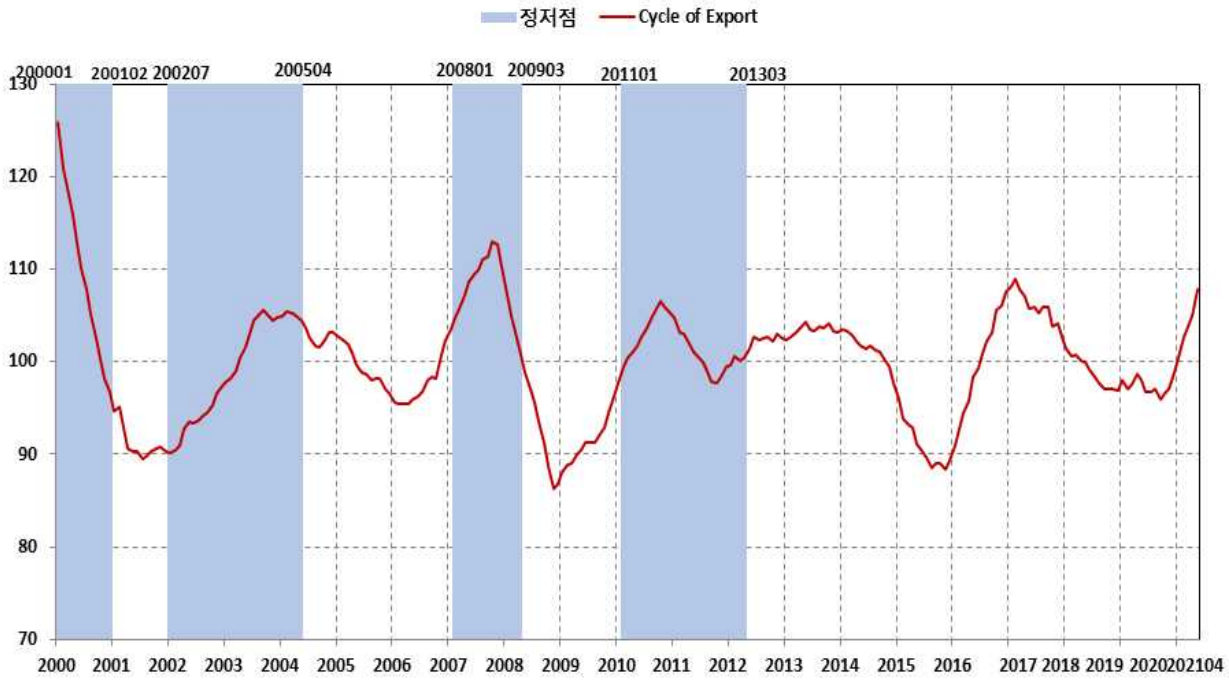
경북 동행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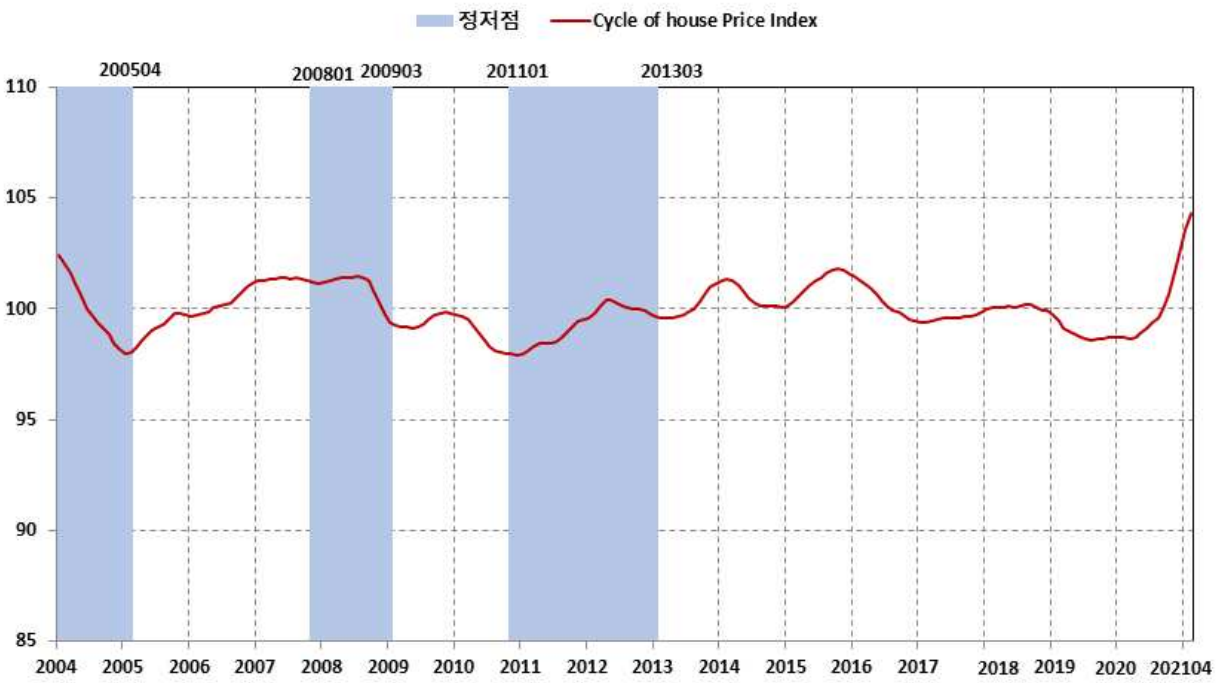
제조업생산지수



수출액



주택매매가격지수



Summary

경기

전월대비 증감

경기종합지수(3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98.6	0.3%	0.3p	102.3

기업경기실사지수(5월)

제조업			비제조업
100	14p	1p	70

생산

전월동월대비 증감

광공업생산지수(4월)

생산		출하		재고	
88.3	8.2%	88.3	12.5%	106.6	12.4%

소비

전월동월대비 증감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4월)	신용카드사용액(2월)	자동차신규등록대수(4월)
79.5	8,808억 원	6,950대
4.7% ▲	1.5% ▲	5.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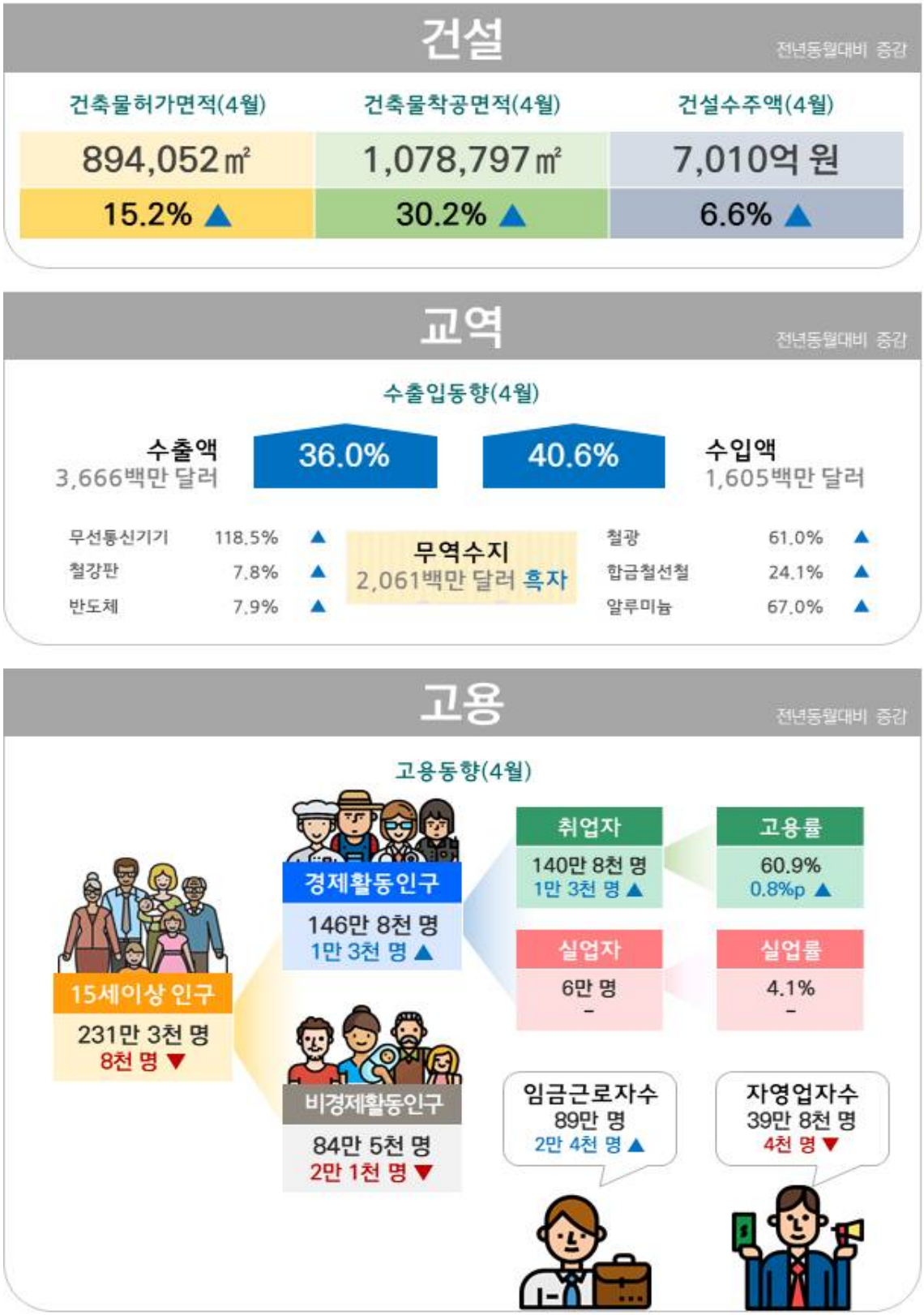
투자

전월동월대비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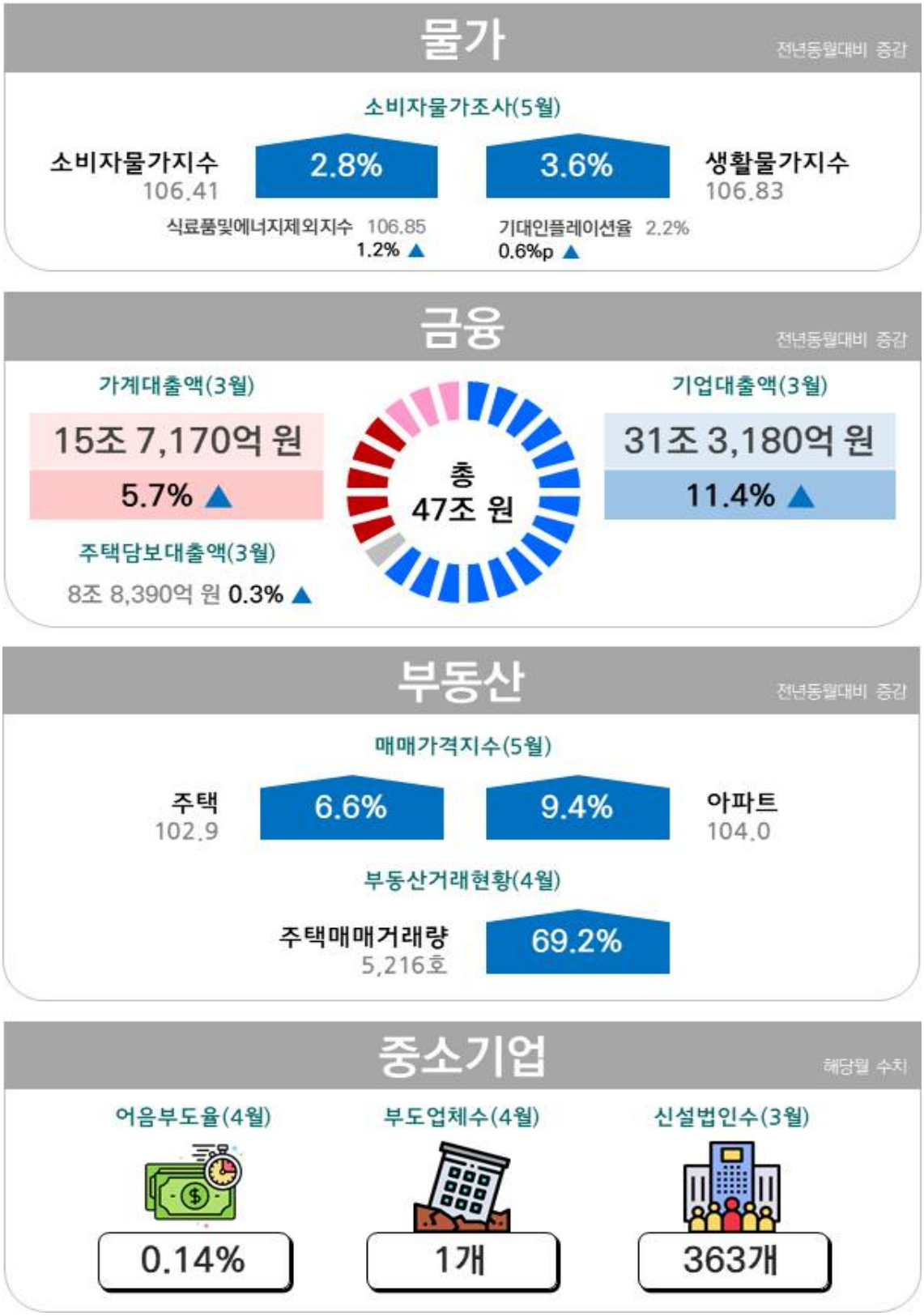
자본재수입액(4월)

211,687천 달러
31.7% ▲

주 1. 경기를 제외한 전 지표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주 2. 이미지출처 : FLATICON



주 1. 경기를 제외한 전 지표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주 2. 이미지출처 : FLATICON



주 1. 경기를 제외한 전 지표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주 2. 이미지출처 : FLATICON

경기

3월 경북 동행종합지수 전월대비 0.3% 상승

○ 동행종합지수 98.6으로 전월대비 0.3% 상승, 순환변동치 102.3으로 전월차 0.3p 증가

- 구성지표 중 비농가취업자수(0.6%), 대구경북제조업업황BSI(3.0%), 생산자제품출하지수(중간재)(0.7%), 제조업전력사용량(0.6%), 대형마트판매액지수(불변)(0.4%)는 증가, 수출액(실질)(-2.9%), 수입액(실질)(-0.7%)은 감소

3월 국내 동행종합지수 전월대비 0.7% 상승

○ 동행종합지수 115.1로 전월대비 0.7% 상승, 순환변동치 100.2로 전월대비 0.5p 증가

- 구성지표 중 광공업생산지수(0.8%), 수입액(1.1%), 소매판매액지수(1.0%)는 증가, 건설기성액(-0.3%)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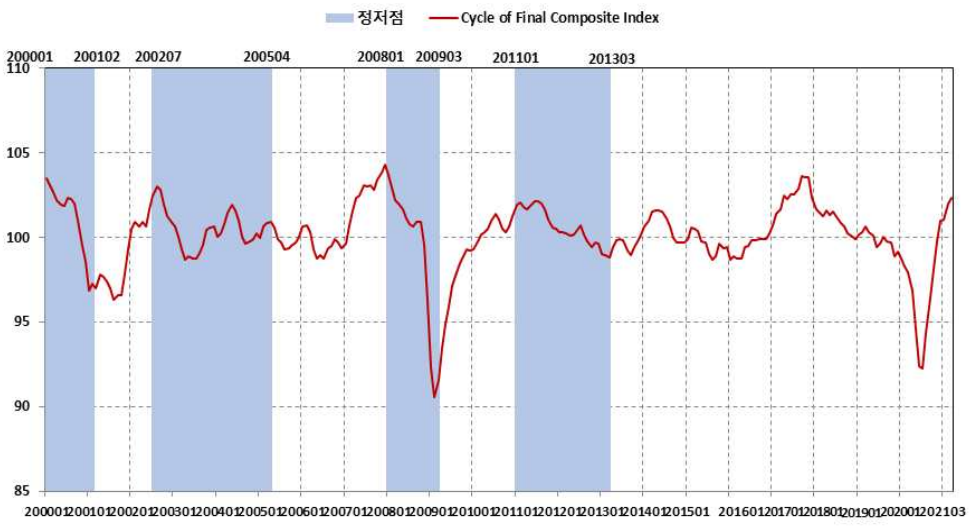
경기종합지수

(2015=100)

구 분		2020			2021		
		10	11	12	01P	02P	03P
경북	동행종합지수	94.8	96.2	97.4	97.5	98.3	98.6
	전월대비(%)	1.7	1.5	1.2	0.1	0.8	0.3
	순환변동치	98.2	99.8	101.0	101.1	102.0	102.3
	전월차(p)	1.8	1.6	1.3	0.1	0.9	0.3
전국	동행종합지수	113.0	113.8	114.0	113.9	114.3	115.1
	전월대비(%)	0.6	0.7	0.2	-0.1	0.4	0.7
	순환변동치	98.5	99.5	99.7	99.4	99.7	100.2
	전월차(p)	0.4	0.5	0.2	-0.3	0.3	0.5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임.
자료 :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경북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 **순환변동치** : 경제가 장기간에 걸쳐 같은 추세 속에 있어도 단기적인 변동의 속도가 주기적으로 등락하는 순환변동을 원자료에서 계절, 불규칙, 추세요인을 제거한 뒤 순환변동 요인을 나타낸 지표

5월 제조업 BSI, 비제조업 BSI 전월대비 각각 증가

5월 제조업 BSI는 100, 비제조업 BSI는 70

○ 제조업 업황BSI는 100으로 전월대비 14p, 6월 업황 전망BSI는 96으로 5p 각각 증가

- 매출BSI는 135로 전월대비 13p, 6월 전망은 130으로 5p 각각 증가
- 생산BSI는 126으로 전월대비 9p, 6월 전망은 128로 1p 각각 증가
- 채산성BSI는 89로 전월대비 1p 증가, 6월 전망은 89로 1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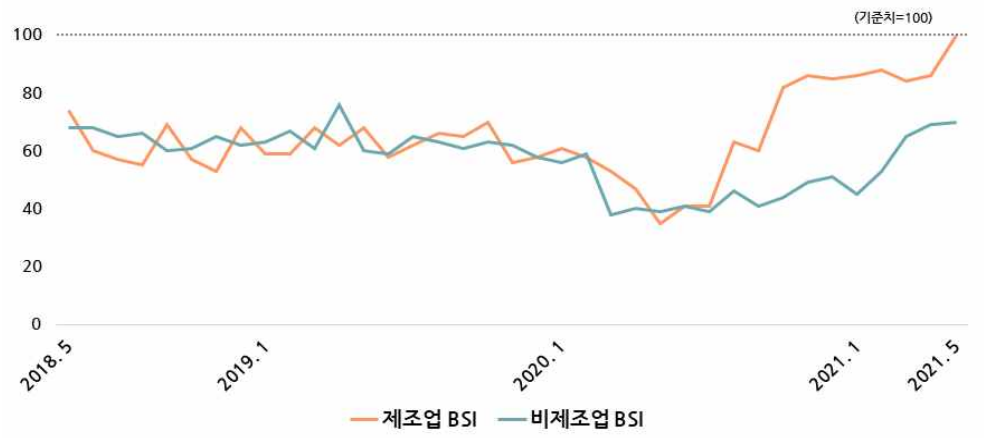
○ 비제조업 업황BSI는 70으로 전월대비 1p 증가, 6월 업황 전망BSI는 69로 3p 감소

- 매출BSI는 75로 전월대비 4p 감소, 6월 전망은 80으로 4p 증가
- 채산성BSI는 79로 전월대비 2p, 6월 전망은 82로 7p 각각 증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기준치=100)

구 분	2020			2021					
	10	11	12	01	02	03	04	05	06
제조업 BSI	82 (64)	86 (74)	85 (78)	86 (82)	88 (81)	84 (86)	86 (92)	**100 (91)**	– **(96)**
비제조업 BSI	44 (39)	49 (39)	51 (43)	45 (49)	53 (47)	65 (56)	69 (67)	**70 (72)**	– **(69)**



주 : ( )는 전월에 조사된 해당월 전망치

자료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2021년 5월 대구경북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

★ **기업경기조사지수 (Business Survey Index ; BSI) :** 경기예측방법의 하나로서 경기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 이에 대비한 계획서 등을 설문서를 통해 조사, 수치화하여 전반적인 경기 동향을 파악하고자 사용하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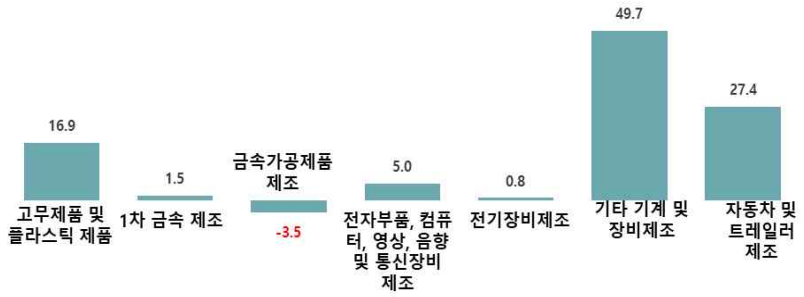
생산

4월
광공업 생산, 출하, 전년동월대비 증가, 재고 감소

광공업생산지수는 88.3으로 전년동월대비 8.2% 상승, 전월대비 3.0% 하락

○ 광공업생산지수는 기계장비, 자동차, 고무제품 등에서 증가, 금속가공제품 등에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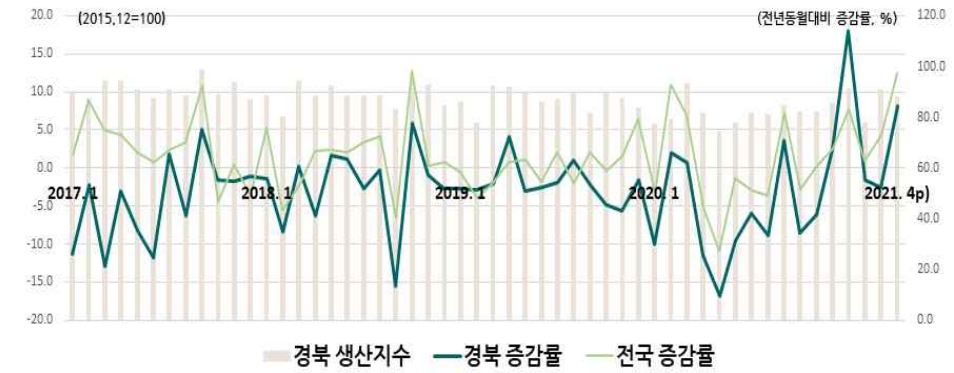
- 전년동월대비 생산은 기계장비(49.7%), 자동차(27.4%) 등은 증가, 금속가공제품(-3.5%) 등은 감소
- 기계장비는 평판디스플레이제조용기계, 베어링 등이 증가,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등이 증가
- 금속가공제품은 판금제품, 용접봉, 육상금속구조물 등에서 감소
- 4월 광공업 생산과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소폭 상승, 특히 기타 기계장비의 생산이 증가



광공업생산지수

(2015=100, 단위 : %)

2019	2020			2021			
연간	10	11	12	01	02	03p	04p
87.0 (-1.8)	82.4 (-6.2)	85.7 (2.6)	91.3 (18.0)	91.5 (18.2)	78.0 (-1.6)	**91.0** **(-2.5)**	**88.3** **(8.2)**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광공업생산지수 :** 산업 생산 활동에 대해 광업, 제조업, 전기 및 가스업을 대상으로 매월 생산 수량을 조사하여 작성되는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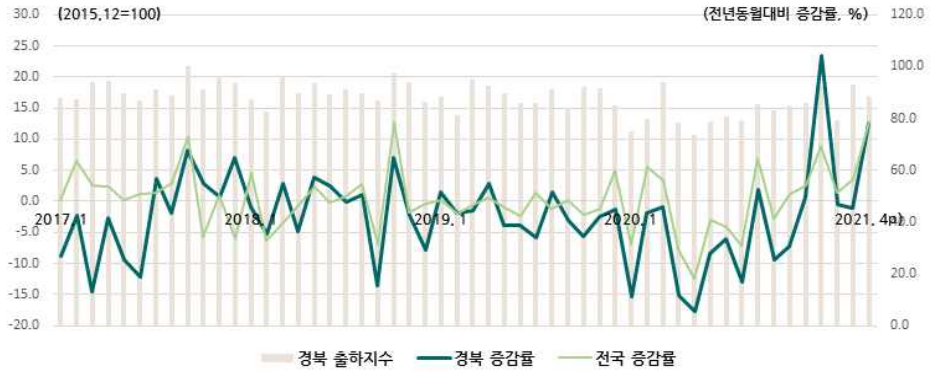
광공업제품출하지수 전년동월대비 12.5% 상승, 전월대비 5.0% 하락

- 전년동월대비 출하는 1차금속(3.7%), 기계장비(13.1%)는 증가, 전기장비(-25.8%),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4.1%), 전기·가스·증기업(-18.4%) 등은 감소

광공업제품출하지수

(2015=100, 단위 : %)

2019	2020			2021			
연간	10	11	12	01	02	03p	04p
88.5	83.3	85.1	85.6	92.4	79.2	**92.9**	**88.3**
(-1.9)	(-9.4)	(-7.2)	(0.5)	(23.4)	(-0.5)	**(-1.2)**	**(12.5)**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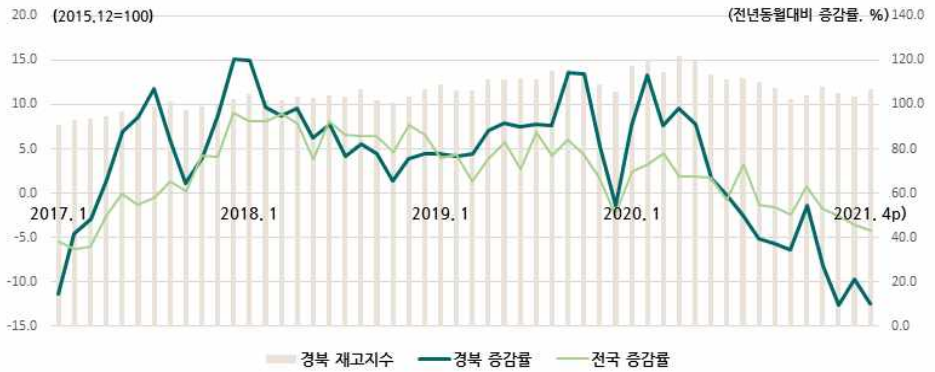
광공업제품재고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2.4% 하락, 전월대비 3.1% 상승

- 전년동월대비 재고는 전기장비(22.2%), 기계장비(1.6%), 전자부품(8.1%)은 증가, 1차금속(-12.3%), 금속가공(-41.0%), 화학제품(-22.6%) 등 감소

광공업제품재고지수

(2015=100, 단위 : %)

2019	2020			2021			
연간	10	11	12	01	02	03p	04p
105.6	107.6	102.4	104.1	107.8	105.2	**103.4**	**106.6**
(-1.5)	(-5.6)	(-6.3)	(-1.4)	(-8.2)	(-12.6)	**(-9.7)**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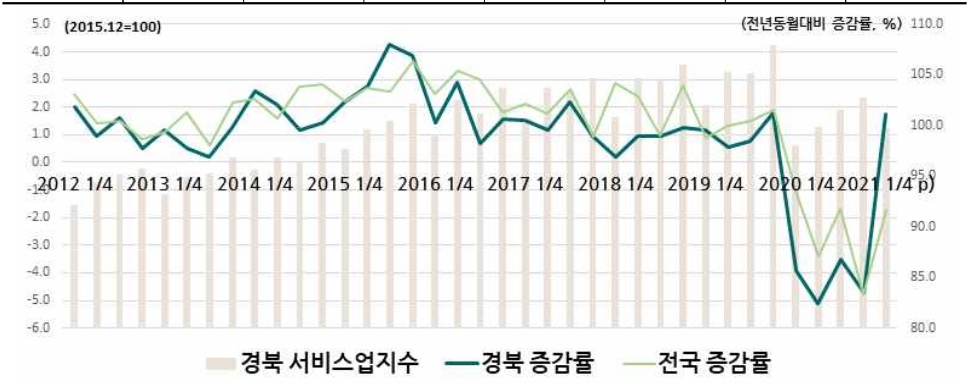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1/4분기 서비스업생산 전년동기대비 1.7% 상승, 전기대비 3.0% 하락

서비스업생산지수

(2015=100, 단위 : %)

2019			2020				2021
2/4	3/4	4/4	1/4	2/4	3/4p	4/4p	1/4p
105.3	105.2	107.9	98.0	99.9	**101.5**	**102.8**	**99.7**
(0.6)	(0.8)	(1.8)	(-3.9)	(-5.1)	**(-3.5)**	**(-4.7)**	**(1.7)**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기비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서비스업생산지수 : 서비스업의 성장세를 가늠하는 지표로 서비스업 전체 및 개별업종의 생산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는 지수

소비

4월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전년동월대비 상승

4월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전년동월대비 4.7% 상승, 전월대비 0.9% 하락

○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는 79.5로 전년동월대비 4.7% 상승

- 전국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는 96.9로 전년동월대비 13.1% 상승
- 경북 대형마트판매액지수는 80.0으로 전년동월대비 0.9% 상승
- 전년동월에 비해 의복, 신발·가방, 오락·취미·경기용품, 가전제품, 기타상품은 증가, 화장품, 음식료품은 감소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2015=100, 단위 : %)

구분	2019	2020			2021			
	연간	10	11	12	01	02	03p	04p
대형 소매점	86.5 (-5.3)	80.7 (2.2)	81.5 (-3.2)	84.9 (-2.0)	84.8 (-17.3)	88.6 (22.7)	**80.2 (14.9)**	**79.5 (4.7)**
대형마트	88.2 (-5.8)	80.9 (3.5)	81.0 (-2.4)	88.0 (1.1)	89.1 (-16.4)	92.6 (21.4)	**81.1 (7.0)**	**80.0 (0.9)**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2월 신용카드사용액은 8,808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5% 상승

○ 식료품(51.6%), 오락·문화(19.7%), 여행·교통(10.0%) 등의 사용액은 증가했으나 금융·보험(-58.6%), 전자상거래·통신판매(-51.6%), 숙박·음식(-6.2%)의 사용액 감소

*** 3월 신용카드사용액은 한국은행 미발표로 추후 업데이트 예정**

★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 대형소매점(매장면적 3천㎡ 이상 점포)의 월평균 판매액 지수

신용카드사용액

(단위 : 십억 원, %)

2020						2021	
07	08	09	10	11	12	01	02
954.6 (-6.3)	1,048.3 (-2.6)	966.4 (-2.4)	977.6 (-6.5)	979.1 (-5.5)	921.9 (-12.6)	896.5 (-13.4)	**880.8** **(1.5)**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한국은행 "지역별 소비유형별 신용카드"

4월 자동차 신규등록대수는 6,950대로 전년동월대비 5.5% 상승

○ 자동차 신규등록대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지속

자동차 신규등록대수

(단위 : 대, %)

2019	2020			2021			
연간	10	11	12	01	02	03	04
74,747 (-1.4)	6,789 (2.7)	7,538 (3.0)	6,653 (0.6)	7,267 (17.8)	5,238 (18.2)	7,018 (13.0)	**6,950** **(5.5)**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 현황보고"

구분	합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2018	75,810	57,846	2,225	15,150	589
2019	74,747	56,693	2,050	15,369	635
2020. 10.	6,789	4,988	140	1,588	73
11.	7,538	5,690	131	1,656	61
12.	6,653	5,093	166	1,315	79
2021. 1.	7,267	5,553	116	1,513	85
2.	5,238	4,026	69	1,090	53
3.	7,018	5,071	125	1,754	68
4.	6,950	5,193	71	1,604	82

투자

4월 자본재수입액 전년동월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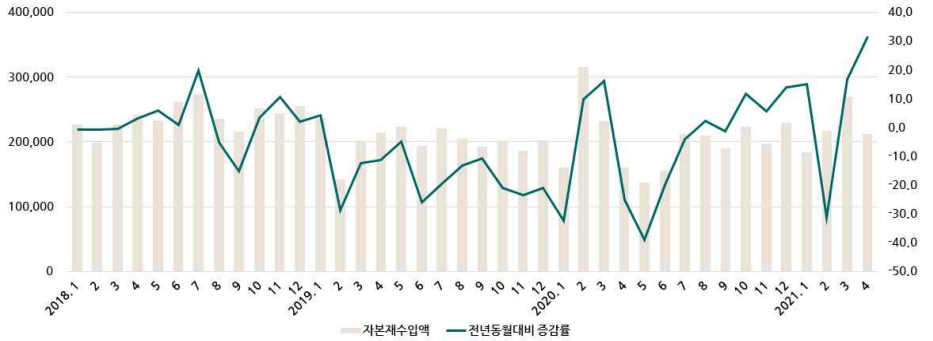
○ 자본재수입액은 211,687천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1.7% 상승

- 품목별로는 기계 및 정밀기계(38.6%), 전기 및 전자기기(36.9%), 수송장비(10.6%)의 수입은 증가, 기타 자본재수입(-56.0%)의 수입은 감소

자본재수입액

(단위 : 천 달러, %)

2020				2021			
09	10	11	12	01	02	03	04
190,299 (-1.4)	223,353 (11.6)	192,072 (5.6)	229,745 (13.8)	184,199 (15.1)	216,513 (-31.3)	270,024 (16.6)	**211,687** **(31.7)**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 **자본재수입액 :** 경기선행지수의 구성 지표로 재료, 원료, 기계, 설비 등의 수입액

건설

4월 건축물허가면적, 건축물착공면적 전년동월대비 각각 상승

○ 건축물허가면적은 전년동월대비 15.2% 상승한 894,052㎡

- 용도별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모두 증가
- 주거용은 전년동월대비 0.5% 증가한 318,788㎡, 상업용은 54.7% 증가한 155,093㎡, 공업용은 58.1% 증가한 173,7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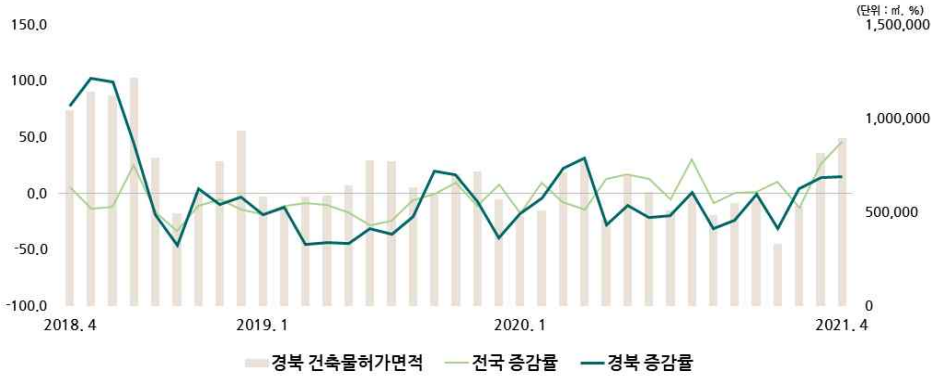
○ 건축물착공면적은 전년동월대비 30.2% 상승한 1,078,7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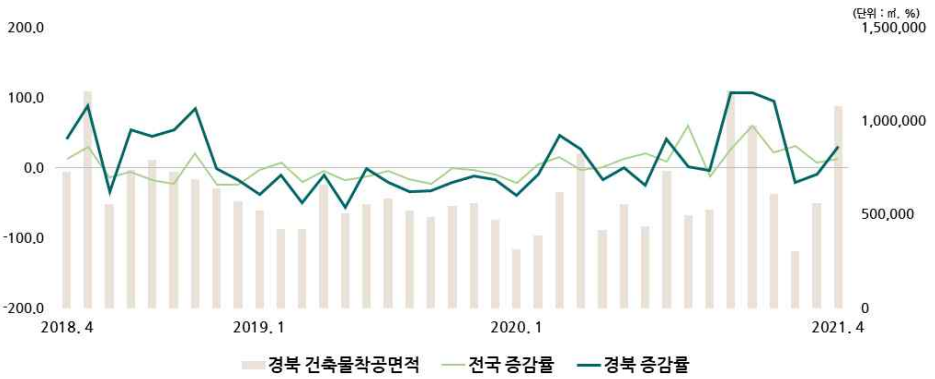
- 용도별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모두 증가
- 주거용은 전년동월대비 78.2% 증가한 562,943㎡, 상업용은 66.6% 증가한 117,762㎡, 공업용은 전년동월대비 11.9% 증가한 156,460㎡

건축물허가면적 및 건축물착공면적

(단위 : ㎡, %)

구 분	2020			2021			
	10	11	12	01	02	03	04
건축허가면적	482,571 (-31.2)	547,777 (-23.8)	563,684 (-1.1)	331,265 (-30.9)	533,422 (4.4)	813,874 (14.0)	**894,052** **(15.2)**
건축착공면적	527,679 (-3.2)	1,163,210 (107.1)	976,147 (106.2)	612,410 (94.5)	304,915 (-21.4)	562,272 (-9.1)	**1,078,797** **(30.2)**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

★ **건축허가면적 :** 건설(건축/토목)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 **건축착공면적 :** 건설경기 동행지표로서 공사가 실제로 착수된 면적을 집계한 수치

4월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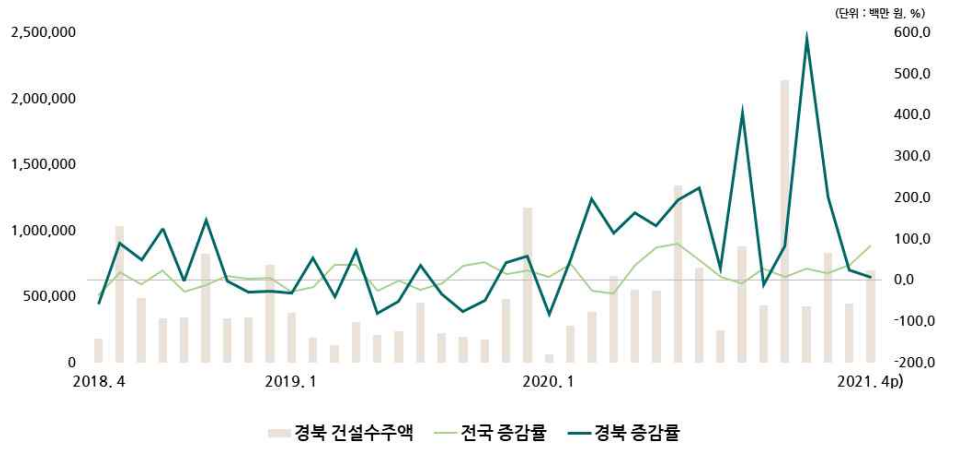
○ 건설수주액은 항만, 발전, 기계설치 등의 수주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6.6% 상승한 701,030백만 원

- (공종별) 건축부문 562,479백만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7%, 토목부문 138,551백만 원으로 32.3% 각각 상승
- (발주자별) 공공부문 131,451백만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85.5% 상승, 민간부문 569,579백만 원으로 2.9% 하락

건설수주액

(단위 : 백만 원, %)

2019	2020			2021			
연간	10	11	12	01	02	03p	04p
4,145,687	878,376	431,601	2,137,944	425,328	830,451	**448,321**	**701,030**
(-24.7)	(403.3)	(-10.9)	(82.4)	(581.9)	(201.6)	**(23.4)**	**(6.6)**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 **건설수주액** : 국내 일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발주자가 제시하는 건설공사물을 건설업체가 완공해주기로 한 것에 대한 쌍방 간의 계약에 대한 금액

교역

4월 수출액, 수입액 전년동월대비 각각 상승

○ 수출액은 3,666백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6.0%, 수입액은 1,605백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40.6% 각각 상승, 무역수지는 2,061백만 달러 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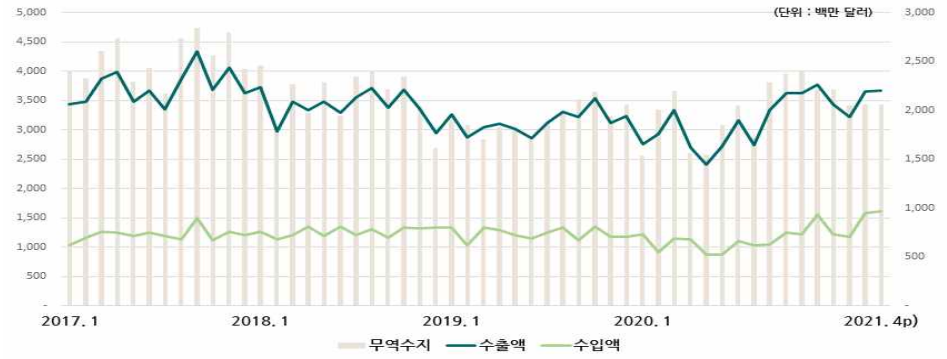
○ 수출금액이 높은 품목은 무선통신기기(118.5%), 철강판(7.8%), 반도체(7.9%), 광학기기(54.9%) 등[1)]

- 수입금액이 높은 품목은 철광(61.0%), 합금철선철 및 고철(24.1%), 알루미늄(67.0%), 석탄(-36.9%) 등
- 수출금액에 따른 주요 수출 국가는 중국(36.1%), 미국(-37.5%), 베트남(15.7%), 일본(0.2%) 순

수출입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20			2021			
	10	11	12	01	02	03p	04p
수출액	3,623 (2.5)	3,622 (16.0)	3,760 (16.4)	3,438 (24.7)	3,226 (10.2)	**3,650** **(9.4)**	**3,666** **(36.0)**
수입액	1,249 (-7.2)	1,221 (3.1)	1,549 (31.1)	1,226 (1.4)	1,178 (28.8)	**1,589** **(38.4)**	**1,605** **(40.6)**
무역수지	2,374	2,401	2,211	2,212	2,048	**2,060**	**2,061**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1)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고용

4월 경북 경제활동인구 146만 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9% 상승

○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만 3천 명(0.9%) 증가

- 비경제활동인구는 84만 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 전월대비 2.1% 각각 감소

경제활동인구

(단위 : 천 명, %)

2019	2020			2021			
연간	10	11	12	01	02	03	04
1,488	1,489	1,495	1,442	1,419	1,430	1,452	**1,468**
(0.0)	(-0.9)	(-1.1)	(-2.7)	(-3.4)	(-2.2)	(0.5)	**(0.9)**

주 : ( )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4월 취업자 140만 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9% 상승

○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만 3천 명(0.9%) 증가

- 전년동월대비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만 8천 명), 농림어업(2만 8천 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1만 5천 명), 건설업 (3천 명)은 증가, 도소매·숙박음식점업(-4만 2천명), 제조업(-2만 7천 명)은 감소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감률 중 경북(0.9%)은 9대 광역도 중 가장 낮은 상승폭

취업자수

(단위 : 천 명, %)

2019	2020			2021			
연간	10	11	12	01	02	03	04
1,430	1,438	1,444	1,385	1,334	1,353	1,383	**1,408**
(0.3)	(-1.4)	(-1.9)	(-2.3)	(-4.2)	(-3.8)	(-0.6)	**(0.9)**



주 : ( )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노동을 제공한 사람(취업자)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실업자)

★ **취업자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 종사자, 일시휴직자

4월 고용률 60.9%, 실업률 4.1%로 전국평균 각각 상회

○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8%p 증가한 60.9%로 전국평균 60.4% 상회

- OECD기준(15~64세) 고용률은 65.0%로 전국 66.2%보다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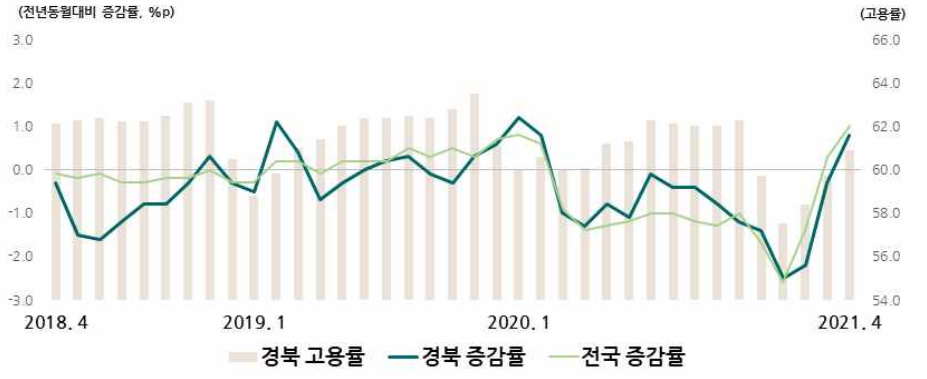
○ 실업률은 전년과 동일한 4.1%로 전국평균 4.0% 상회

- 실업자는 약 6만 명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

고용률 및 실업률

(단위 : 천 명, %p)

구분	2019	2020			2021			
	연간	10	11	12	01	02	03	04
고용률	61.7 (0.1)	62.0 (-0.8)	62.3 (-1.2)	59.7 (-1.4)	57.5 (-2.5)	58.4 (-2.2)	59.7 (-0.3)	**60.9** **(0.8)**
실업률	3.9 (-0.2)	3.4 (0.4)	3.4 (0.9)	4.0 (-0.3)	6.0 (0.8)	5.4 (1.6)	4.8 (1.1)	**4.1** **(0.0)**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고용률** :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100

★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4월 임금근로자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자영업자수 감소

○ 임금근로자수는 전년동월대비 2.7% 상승한 89만 명

- 임금근로자수는 전년동월대비 2만 4천 명 증가
- 전년동월대비 임시근로자수(4.8%), 일용근로자수(31.7%) 증가, 상용근로자수 보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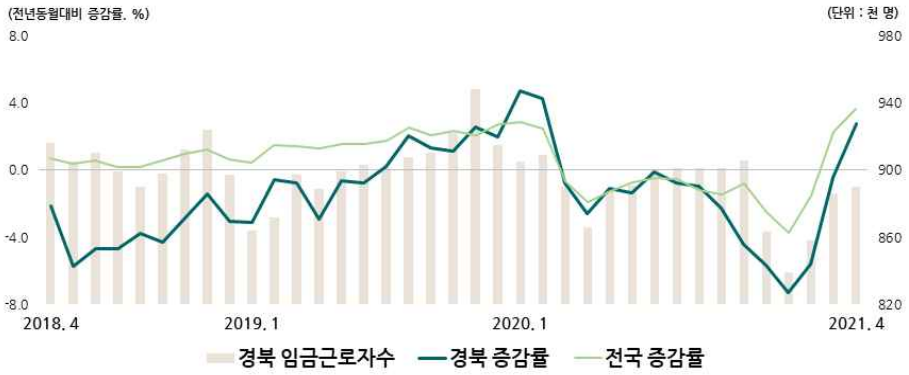
○ 자영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1.0% 하락한 39만 8천 명

- 자영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천 명 감소
- 전년동월대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수(0.9%) 증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수(-12.8%) 감소

임금근로자수 및 자영업자수

(단위 : 천 명, %)

구분	2019	2020			2021			
	연간	10	11	12	01	02	03	04
임금근로자	902 (-3.3)	901 (-2.3)	906 (-4.5)	863 (-5.8)	839 (-7.3)	858 (-5.7)	886 (-0.4)	**890** **(2.7)**
자영업자	402 (-0.1)	401 (1.3)	407 (2.8)	411 (4.1)	401 (4.5)	399 (1.3)	390 (-2.1)	**398** **(-1.0)**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임금근로자 :** 상용근로자 + 임시근로자 + 일용근로자

★ **자영업자**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물가

5월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각각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는 106.41로 전년동월대비 2.8%, 전월대비 0.1% 각각 상승

- 전월대비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0.7%), 교통(0.5%),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0.3%), 오락 및 문화(0.3%)는 상승, 주류 및 담배, 보건은 보합, 통신(-0.3%),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0.2%) 등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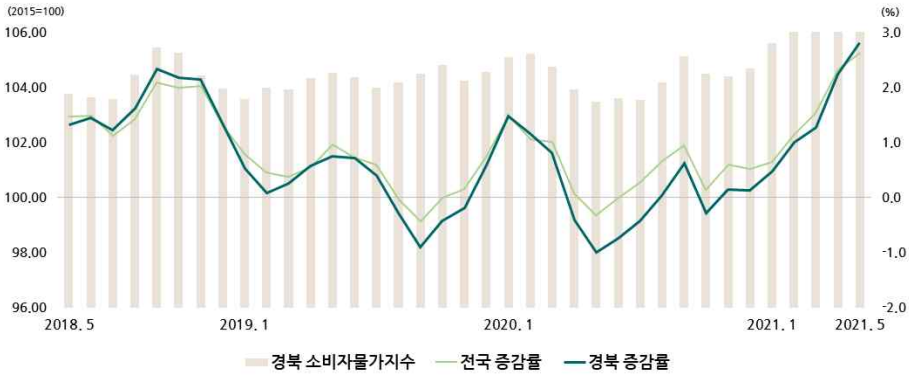
○ 생활물가지수는 106.83으로 전년동월대비 3.6%, 전월대비 0.1% 각각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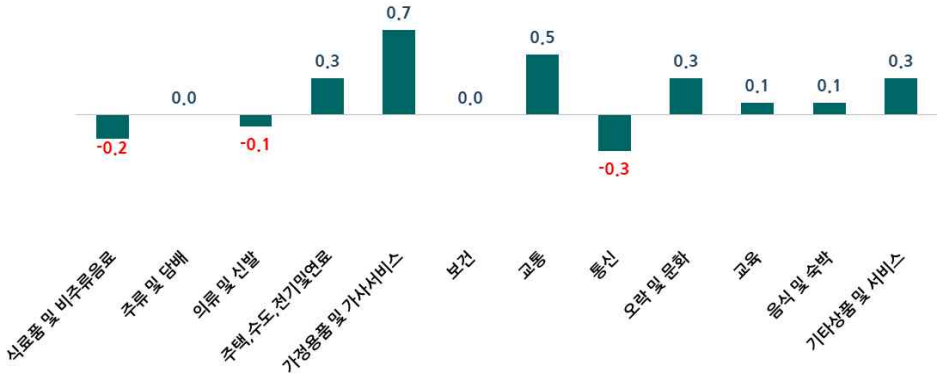
- 식품지수는 114.30으로 전년동월대비 4.2%, 식품이외는 102.84로 3.2% 각각 상승

물가지수

(2015=100, 단위 : %)

구분	2019	2020		2021				
	연간	11	12	01	02	03	04	05
소비자 물가지수	104.26 (0.2)	104.40 (0.2)	104.69 (0.1)	105.63 (0.5)	106.28 (1.0)	106.10 (1.3)	106.27 (2.3)	**106.41 (2.8)**
생활 물가지수	104.48 (-0.1)	104.02 (-0.8)	104.36 (-0.6)	105.70 (0.1)	106.79 (0.9)	106.63 (1.1)	106.67 (2.6)	**106.83 (3.6)**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 **소비자물가지수** :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 가격과 서비스요금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수

★ **생활물가지수** : 체감물가를 파악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작성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보조지표

금융

3월 가계대출은 전년동월대비 5.7% 상승한 15.7조 원으로 전월대비 0.2%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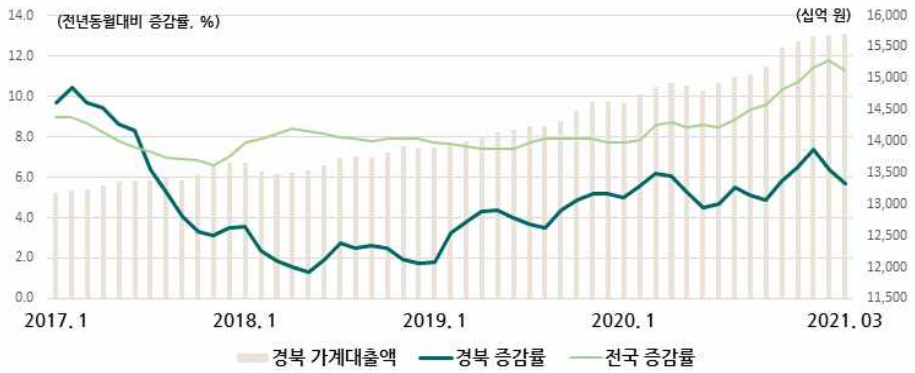
○ 총 대출액 47조 원 중 가계대출은 33.0% 차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가계대출 증가 지속

3월 가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지속

가계대출액

(단위 : 십억 원, %)

2019	2020				2021		
연간	09	10	11	12	01	02	03
14,236	15,065	15,191	15,484	15,579	15,678	15,692	**15,717**
(4.0)	(5.1)	(4.9)	(5.8)	(6.5)	(7.4)	(6.4)	**(5.7)**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한국은행 "지역경제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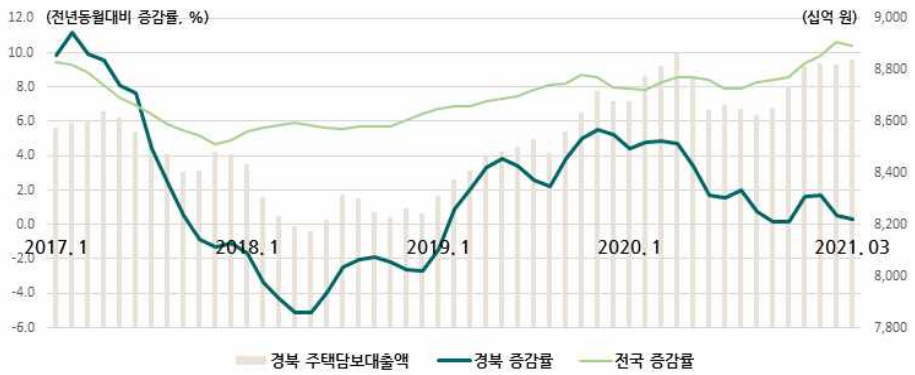
주택담보대출은 8조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3%, 전월대비 0.2% 각각 상승

○ 총 가계대출 15.7조 원 중 주택담보대출은 56.2% 차지

주택담보대출액

(단위 : 십억 원, %)

2019	2020				2021		
연간	09	10	11	12	01	02	03
8,512	8,626	8,647	8,738	8,815	8,827	8,821	**8,839**
(3.0)	(0.8)	(0.1)	(0.2)	(1.6)	(1.7)	(0.5)	**(0.3)**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한국은행 "지역경제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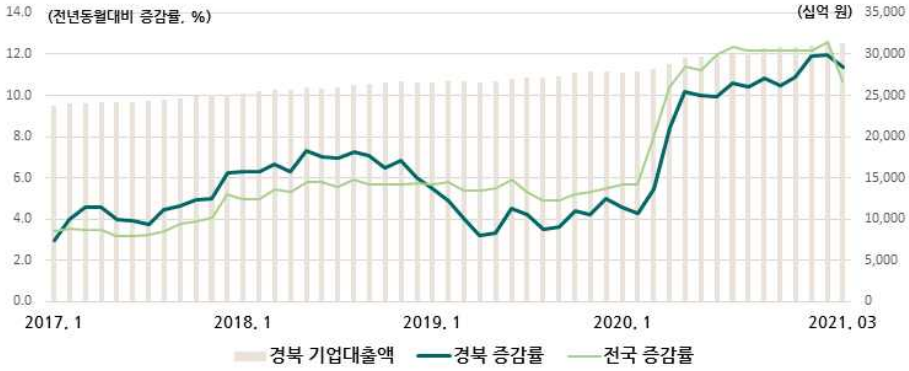
3월 기업대출액은 31조 원

○ 기업대출액은 전년동월대비 11.4% 상승한 31조 원으로 전월대비 0.3% 상승

기업대출액

(단위 : 십억 원, %)

2019	2020				2021		
연간	09	10	11	12	01	02	03
27,103 (4.2)	30,178 (10.4)	30,701 (10.9)	30,806 (10.5)	30,906 (10.9)	31,088 (11.9)	31,227 (12.0)	**31,318** **(11.4)**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한국은행 “지역경제통계”

부동산

5월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각각 상승

○ 5월 주택매매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6.6% 상승한 102.9

- 포항(8.1%), 구미(7.1%), 경산(3.2%)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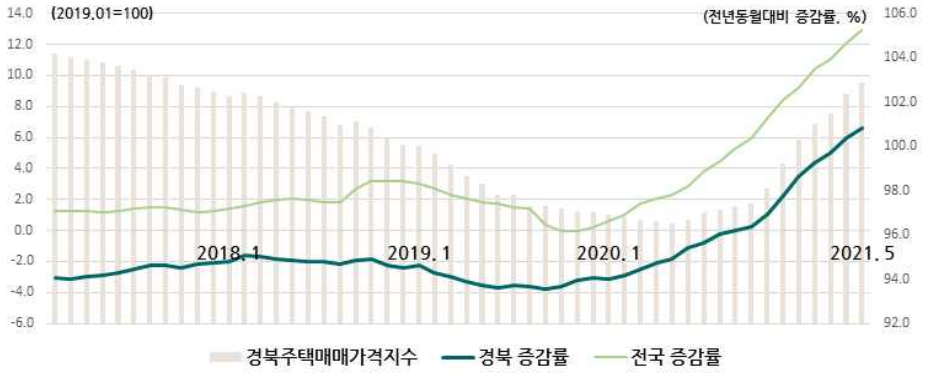
○ 5월 주택전세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3.7% 상승한 1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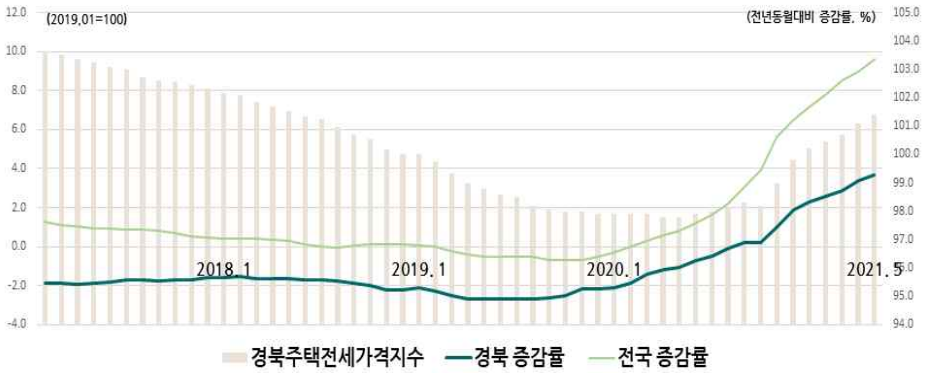
- 구미(15.1%), 포항(5.3%), 경산(1.2%)은 상승

주택가격지수

(2019.01=100, 단위 : %)

구분	2020			2021				
	10	11	12	01	02	03	04	05
매매	97.4 (0.2)	98.1 (1.0)	99.2 (2.3)	100.3 (3.5)	101.0 (4.3)	101.5 (5.0)	102.4 (6.0)	**102.9** **(6.6)**
전세	98.2 (0.2)	99.0 (1.0)	99.8 (1.9)	100.2 (2.3)	100.4 (2.6)	100.7 (2.9)	101.1 (3.4)	**101.4** **(3.7)**





주 : ( )는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국민은행 "월간 KB주택가격동향"

★ **주택가격지수 :** 국민은행에서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을 조사하여 일정시점(2019=100)을 기준으로 라스파이레스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

5월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아파트전세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상승

○ 5월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9.4% 상승한 104.0

- 포항(14.5%), 구미(10.4%), 경산(4.7%), 안동(2.9%)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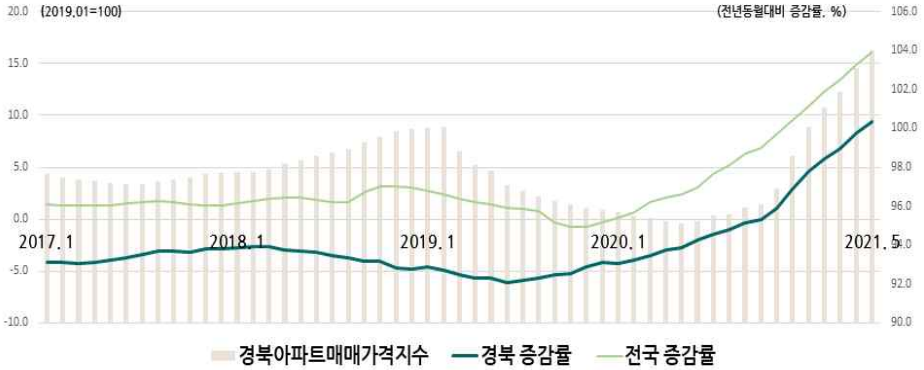
○ 5월 아파트전세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4.9% 상승한 1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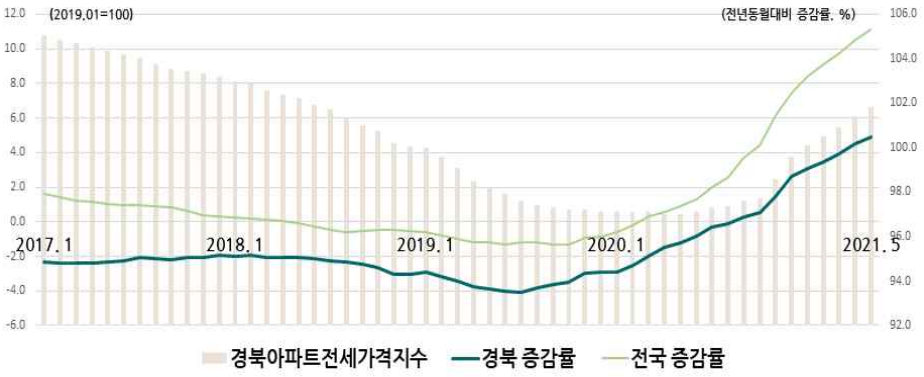
- 포항(9.1%), 구미(4.4%), 경산(1.7%), 안동(0.8%)은 상승

아파트매매가격지수

(2019.01=100, 단위 : %)

구분	2020			2021				
	10	11	12	01	02	03	04	05
매매	96.1 (0.0)	96.9 (1.0)	98.6 (2.9)	100.1 (4.6)	101.1 (5.8)	101.9 (6.8)	103.1 (8.3)	**104.0** **(9.4)**
전세	97.7 (0.5)	98.6 (1.4)	99.6 (2.6)	100.1 (3.1)	100.5 (3.5)	100.9 (3.9)	101.4 (4.5)	**101.8**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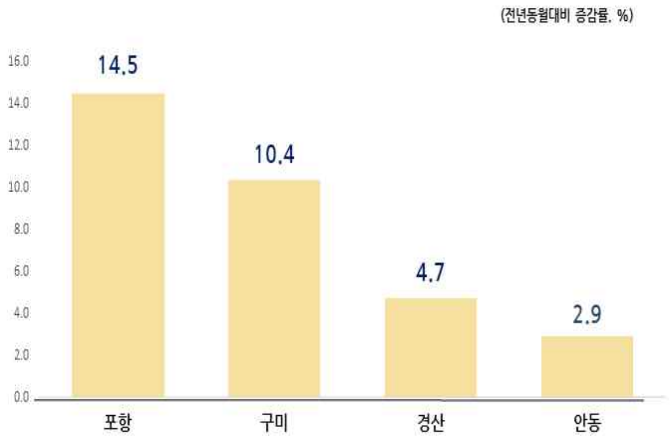




주 : ( )는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국민은행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시군별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증감률



시군별 아파트전세가격지수 증감률



4월 주택매매거래량 전년동월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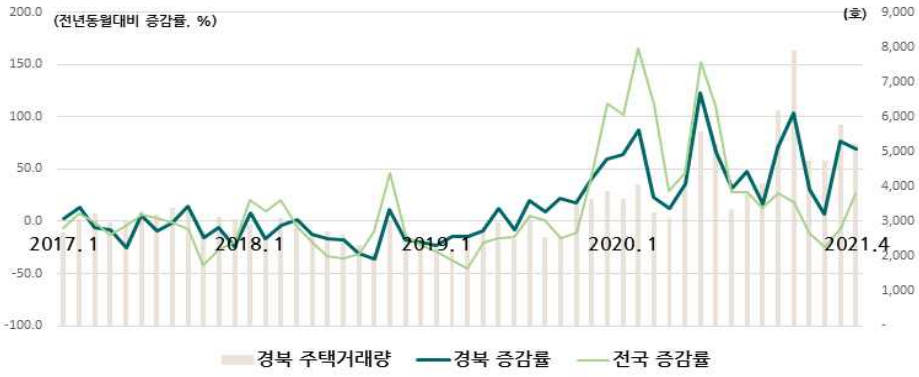
○ 주택매매거래량은 5,216호로 전년동월대비 69.2% 상승, 전국도 상승(26.6%)

- 구미(116.8%), 안동(98.4%), 경산(72.8%), 포항(50.6%)의 주택매매거래량 모두 상승

주택매매거래량

(단위 : 호, %)

2019	2020			2021			
연간	10	11	12	01	02	03	04
34,513	4,095	6,192	7,875	4,732	4,333	5,755	**5,216**
(8.0)	(16.1)	(70.4)	(103.5)	(30.2)	(7.0)	(76.6)	**(69.2)**



주 : ( )는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현황"

중소기업

4월 경북 어음부도율은 0.14%

○ 어음부도율은 전년동월대비 0.05%p, 전월대비 0.11%p 각각 감소

- 전국 어음부도율은 0.06%이고, 충남(0.16%), 경북(0.14%), 경기(0.06%), 충북(0.06%), 경남(0.04%), 제주(0.02%), 전남(0.01%), 강원(0.00%) 순
- 어음부도액은 전월대비 25.8억 원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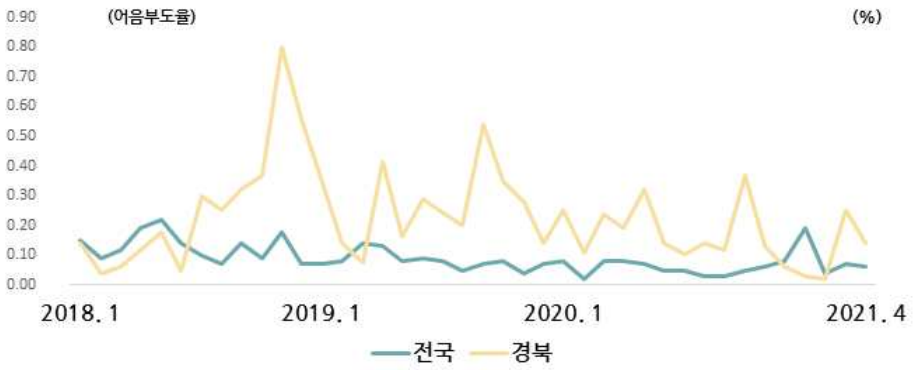
○ 부도업체수는 1개로 전년동월대비 3개 감소

- 총 부도 금액은 24.3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1억 원 감소

어음부도율, 부도업체 수, 신설법인

(단위 : %, 개)

구분	2020				2021			
	09	10	11	12	01	02	03	04
어음부도율	0.12	0.37	0.13	0.06	0.03	0.02	0.25	**0.14**
부도업체수	1 0	3 0	4 4	0 -3	0 0	0 -1	0 -1	**1** **-3**
신설법인수	284 7	284 -17	298 31	393 51	374 14	319 -32	**363** **55**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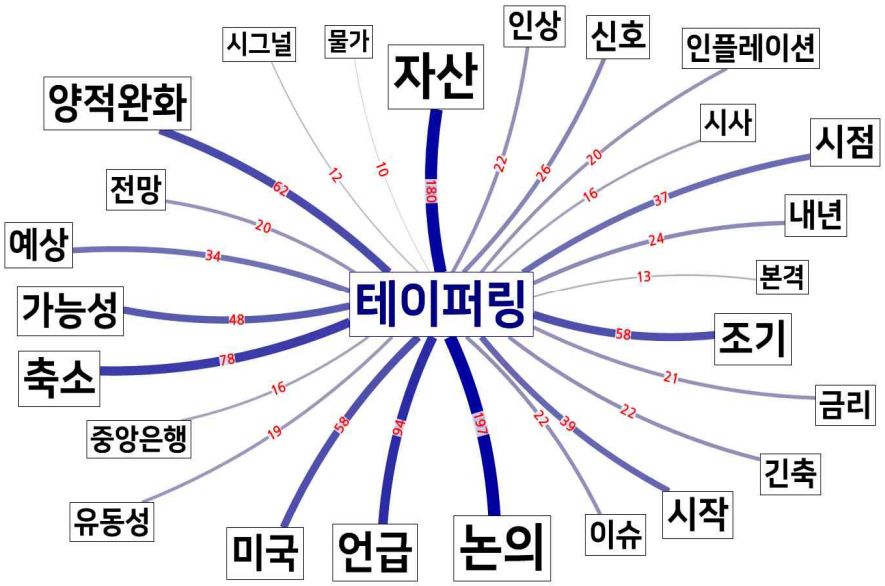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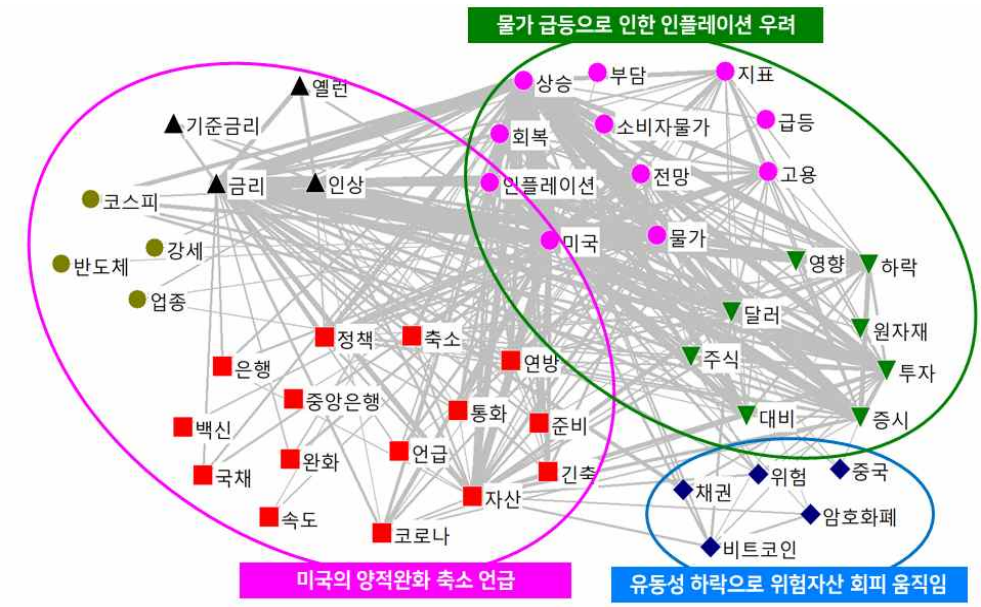
★ **어음부도율 :** 일정 기간 동안 어음결제소에서 거래된 총교환금액 중에서 잔고부족으로 인해 부도난 어음부도액의 비율

BIG DATA : 경제분야 키워드

테이퍼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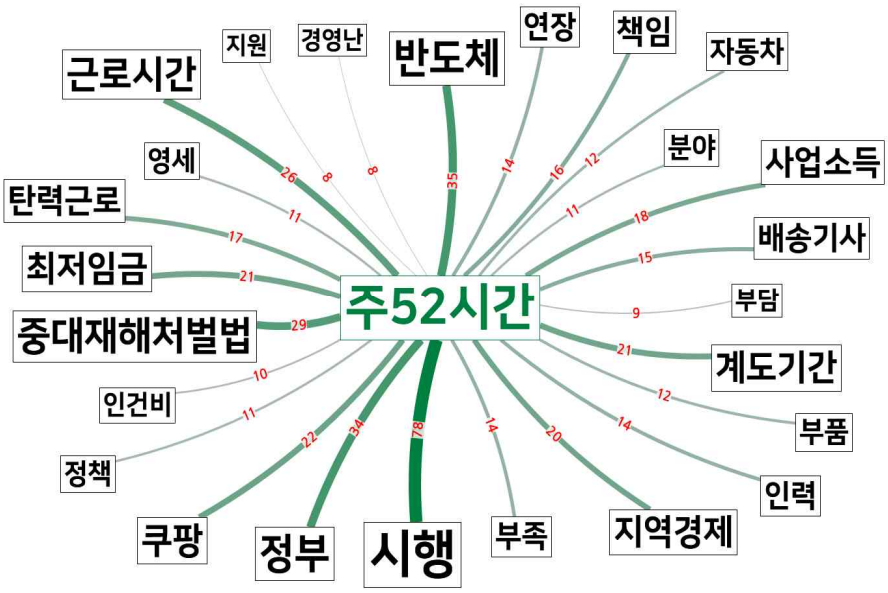


주요단어 : 논의(197), 자산(180), 축소(78), 양적완화(62), 조기(58) 등
미국 Fed의 테이퍼링(자산매입액 축소) 언급으로 조기 통화긴축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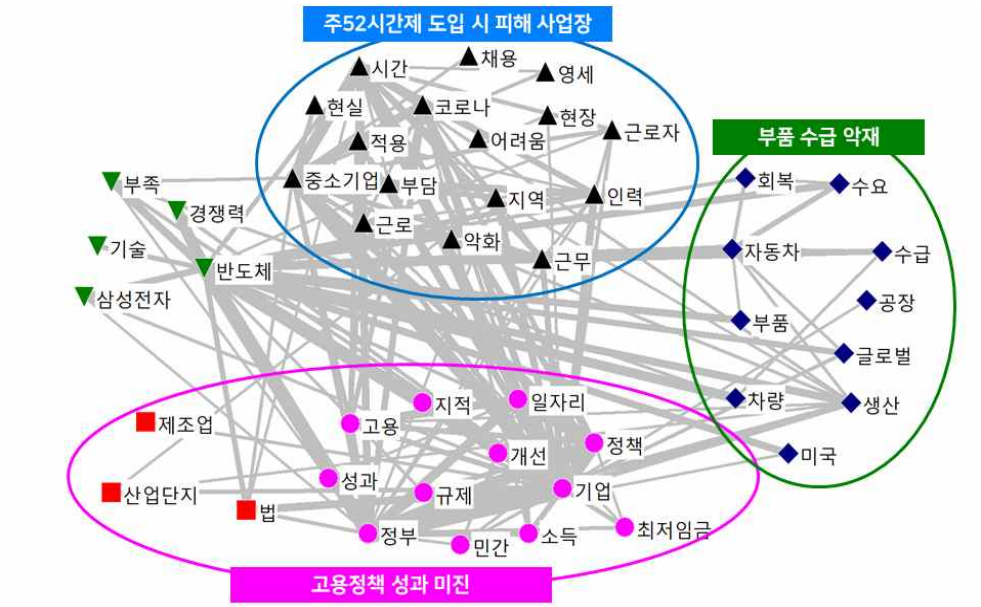


주요 주제 : 미국의 급작스런 물가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로 테이퍼링, 금리 인상 등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에 관한 내용

주52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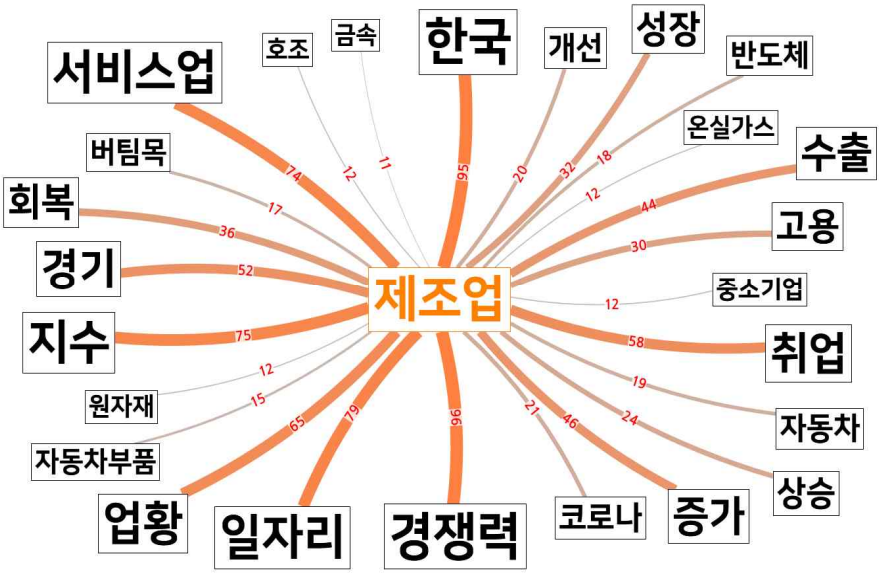


주요단어 : 시행(78), 정부(34), 중대재해처벌법(29), 계도기간(21), 지역경제(20) 등 7월 실시예정인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변화와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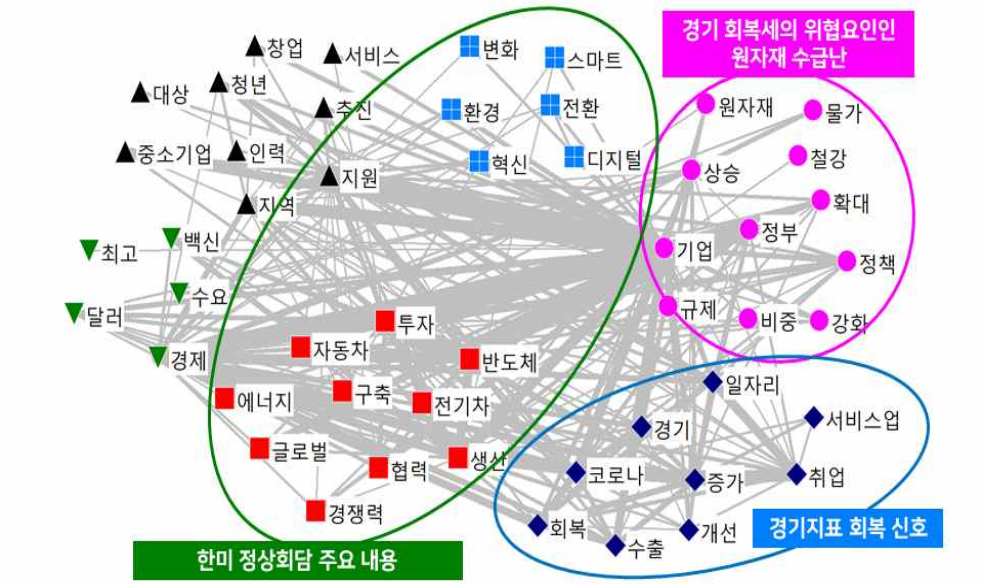


주요 주제 : 주52시간제 적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영세 사업장의 우려와 원자재 및 부품 수급난 등에 관한 내용

제조업



주요단어 : 경쟁력(96), 일자리(75), 업황(65), 증가(46), 회복(36) 등
1분기 주요 제조업 지표의 회복세에 기대감



주요 주제 : 제조업 관련 주요 산업지표의 긍정적 회복 신호와 원자재 수급 및 물류 대란으로 인한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

※ 분석 기간 : 2021년 5월 1일 ~ 2021년 5월 26일
(상단) 연관어 분석 : 주제어와 동시출현한 단어를 등장 빈도에 따라 시각화한 기법
(하단) CONCOR(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s) 분석 : 각각의 범주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문맥 속에서의 역할에 따라 군집별로 묶어 의미를 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네트워크 분석 기법

이달의 이슈

1. 테이퍼링 : 테이퍼링, 언제 어떻게 실현되나

〈연관 검색어 : Fed, 양적완화, 금리, 물가, 인플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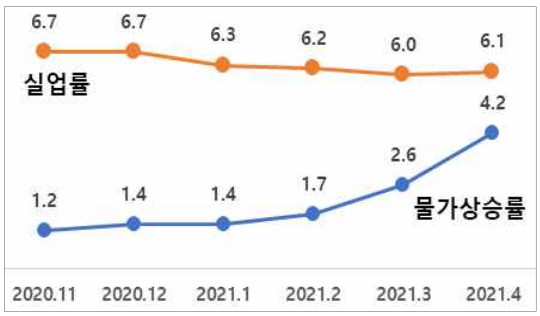
▮ 미 연준, 테이퍼링 가능성 언급

○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테이퍼링(Tapering)을 검토하면서 그 규모와 속도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증폭되는 중

- 5월 20일 공개된 회의록에 의하면 4월 말 개최된 美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이 테이퍼링(tapering)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 중앙은행이 경기부양 등을 위해 국채 등 자산매입을 통해 시중에 통화를 직접 공급하는 정책인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라고 하며, 테이퍼링은 이러한 양적완화 정책의 규모를 서서히 줄여가는 과정을 의미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충격을 극복하기 위하여 현재 미국은 기준 금리를 연 0.00~0.25%로 묶고, 매달 1,200억 달러(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자산 매입을 진행 중
- FOMC 회의록 공개로 미국 금융당국의 테이퍼링이 언제부터, 어떤 속도로 진행될 것인 지,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촉발

○ 미국의 빠른 경제회복 가능성과 함께 최근 물가가 급등하고 있어 양적 완화 규모 축소, 즉 테이퍼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

- 지난 4월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4.2%로 13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매주 최저치를 경신하는 등 경기회복 기미가 강하게 나타나는 중
- 미국의 2021년 경제성장률도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 : OECD는 5월 31일 발표된 수정 전망에서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전망치보다 0.4%p 높인 6.9%로 상향 조정
-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미국은 2013년 테이퍼링 선언 후 7개월 후 개시하였지만, 경기회복 속도가 빠른 지금은 테이퍼링의 선언, 개시, 이어지는 금리인상의 과정이 2013년보다 훨씬 빨라질 수도 있다는 예상도 다수



주 : 전년동기대비, %
자료 : Trading Economics

▲ 미국의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 대응

○ 미국의 테이퍼링과 이어진 금리 인상은 국제 외환시장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미칠 수도 있어 꾸준한 관심이 필요

-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미국 달러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외국에 투자되었던 달러자금의 환수를 유발할 가능성 존재
- 특히 신흥국에 투자되었던 대규모 달러의 급격한 회수로 신흥국 쇼크가 발생하고 이가 다시 선진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 고리가 발현될 우려도 존재
- 다만, 많은 전문가는 4월의 미국 물가 상승세가 일시적·예외적이고 코로나19 위기가 여전히 끝나지 않아 양적완화 정책의 유지 필요성을 주장하는 중으로 테이퍼링의 개시가 예상외로 늦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

2. 주 52시간 : 주52시간제 시행과 지역의 대응 방안

〈연관 검색어 : 주52시간제, 근로기준법, 유연근로제, 탄력근로제〉

1) 52시간 근로제 정책현황

▌주52시간제 정책내용

○ 노동시간 단축(근로기준법 개정, 2018.3.20. 공포)

- 주당 법정 근로시간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18.2.),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 (기존) 평일 40시간 + 평일연장 12시간 + 주말/휴일 16시간 = 총 68시간
- (현재) 평일 40시간 + 평일/주말 12시간 = 총 52시간

○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 감축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 사용 사업장,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2]부터 적용하고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 사용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지만, 1년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2021년 1월부터 적용
-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3]

※ 근로기준법에 1주간의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탄력근로제 일정단위 기간을 단위기간 3개월서 6개월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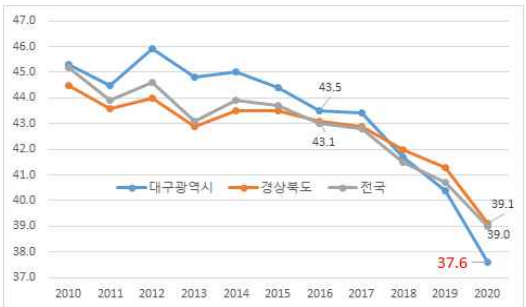
2) 대구경북 취업시간별 및 사업체 규모별 취업자(종사자)현황

▌대구경북 주당 평균취업시간 및 53시간 이상 취업자 감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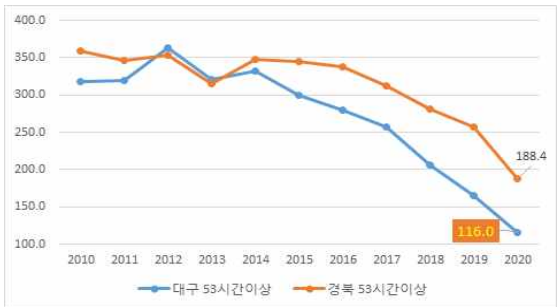
○ 주당평균취업시간과 53시간 이상 취업자는 감소세

- 주당평균근로시간은 지속적으로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대구는 전국 수준보다 낮지만 경북은 전국 수준 보다 높은 수준
- 2020년 주당평균취업시간은 대구 37.6시간, 경북 39.1시간으로 전국 39.0시간과 비교하여 대구는 낮고 경북은 소폭 높은 수준
- 53시간 이상 취업자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대구가 경북보다 많이 낮은 수준

주당평균취업시간 추이



53시간 이상 취업자(천명)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1년 04월 기준

▲ 평균취업시간과 53시간 이상 취업자 추이

2)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제외 업종인 노선버스, 방송, 교육서비스 등 21개 업종은 2019년 7월 1일부터 계도기간 3개월 지정(2019년 9월 까지)

3)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2022년 12월말까지 노사간 합의로 8시간 추가 특별연장근로 가능

○ 2021년 4월 기준 53시간 이상 취업자는 대구 12만 2천 명, 경북 17만 4천 명임

- 전체 취업자에서 53시간 이상 취업자 비중은 대구 10.0%로 전국 수준 12.0%보다 낮으며, 경북은 12.4%로 높음

※ 전체취업자 대비 53시간 이상근로자 비중(%) : 전국 12.0, 서울 10.8, 부산 12.5, 인천 11.9, 광주 13.9, 대전 12.5, 울산 12.2, 경남 15.9, 충북 13.1, 충남 14.7, 강원 13.5

▼ 취업시간별 취업자(2021년 4월 기준)

(단위 : 천 명, %)

취업시간별	취업자수			비중		
	전국	대구	경북	전국	대구	경북
전체	27,213.6	1,216.8	1,408.0	100.0	100.0	100.0
1-17시간	2,134.2	98.3	101.5	7.8	8.1	7.2
18-35시간	3,645.4	175.0	194.1	13.4	14.4	13.8
18-26시간	1,808.1	84.6	103.2	6.6	7.0	7.3
27-35시간	1,837.3	90.4	90.9	6.8	7.4	6.5
36-44시간	12,337.5	568.5	632.7	45.3	46.7	44.9
45-53시간	5,530.7	237.3	297.9	20.3	19.5	21.2
36시간미만	5,779.6	273.3	295.6	21.2	22.5	21.0
1~14시간	1,509.6	65.2	77.6	5.5	5.4	5.5
15~35시간	4,270.0	208.1	218.0	15.7	17.1	15.5
36시간 이상	21,031.2	925.3	1,101.0	77.3	76.0	78.2
36~52시간	17,774.8	803.4	927.0	65.3	66.0	65.8
53시간 이상	3,256.4	121.9	174.0	12.0	10.0	12.4
54시간 이상	3,163.0	119.5	170.5	11.6	9.8	12.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1.04.

▮ 대구경북 사업체 규모별 사업장 및 종사자 현황

○ 5~50인 미만 사업장은 대구 34,899업체, 경북 39,277 업체

- 2021년 7월부터 52시간 적용 5인~50인 미만 사업장수는 대구 34,899개로 전체 사업장의 16.5%, 경북은 39,277 업체로 전체의 16.6%로 전국 19.2% 비중보다 낮음
-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수와 비율을 보면, 대구는 383254명으로 전체 사업장 종사자 대비 39.6%이며, 경북은 453,035명으로 전국대비 39.4%를 차지하여, 전국 비율 38.8%보다 높음

▼ 2019년 전체 산업 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단위 : 개, 명)

구 분	전국		대구		경북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체	4,176,549	22,723,272	210,944	967,934	236,807	1,150,047
1~4명	3,322,812	6,041,327	173,889	307,393	195,038	341,691
5~49인 (비중)	802,059 (19.2)	8,765,349 (38.6)	34,899 (16.5)	383,254 (39.6)	39,277 (16.6)	453,035 (39.4)
5~9명	511,446	3,239,687	22,528	147,370	24,119	154,446
10~19명	187,627	2,468,285	8,069	107,682	9,203	121,921
20~49명	102,986	3,057,377	4,302	128,202	5,955	176,668
50~299명	47,547	4,615,047	2,024	193,041	2,316	218,168
50~99명	32,315	2,216,668	1,408	96,861	1,637	111,033
100~299명	15,232	2,398,379	616	96,180	679	107,135
300명 이상	4,131	3,301,549	132	84,246	176	137,153
300~499명	2,102	796,079	69	25,704	87	33,256
500~999명	1,310	900,397	47	31,789	60	41,359
1000명 이상	719	1,605,073	16	26,753	29	62,538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9

○ 2021년 7월부터 52시간 적용 5~50인 미만 제조업 기준 사업장은 대구 7,407 업체, 경북 10,354 업체

-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수는 대구 7,407개로 전체 사업장의 27.8%, 경북은 10,354 업체로 전체의 34.5%로 전국 34.5% 비중보다 작거나 같음
-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수와 비율을 보면, 대구는 86,333명으로 전체 사업장 종사자 대비 49.5%이며, 경북은 132,424명으로 전국대비 41.5%를 차지 전국 비율 44.3%보다 대구는 높고 경북은 다소 낮음

▼ 2019년 제조업 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단위 : 개, 명)

구 분	전국		대구		경북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체	440,766	4,123,817	26,600	174,311	29,986	319,306
1~4명	277,958	584,984	18,762	37,627	18,773	37,869
5~49인 (비중)	152,034 (34.5)	1,828,439 (44.3)	7,407 (27.8)	86,333 (49.5)	10,354 (34.5)	132,414 (41.5)
5~9명	92,913	624,885	4,561	31,089	6,033	40,964
10~19명	34,026	454,369	1,771	23,099	2,321	31,058
20~49명	25,095	749,185	1,075	32,145	2,000	60,392
50~299명	10,090	997,154	409	38,624	783	79,615
50~99명	6,695	457,607	291	20,096	511	34,731
100~299명	3,395	539,547	118	18,528	272	44,884
300명 이상	684	713,240	22	10,532	76	69,408
300~499명	369	140,155	12	4,377	38	14,817
500~999명	196	133,480	9	6,155	27	18,929
1000명 이상	119	439,605	1	X	11	35,662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9

3) 52시간 근로제의 문제점 및 정책 대응 방향

▌52시간 근로제는 코로나 위기기간 중 적용으로 어려움 가중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유례없는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조정 및 인력 충원의 부담으로 작용

○ 중소기업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개정을 하고 있지만, 인력 보충이 쉽지 않은 상황

- 52시간 근로제 미 적용시 법적 책임 요건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인데 소기업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사업체의 52시간제 운영 방향 및 업종별 가이드라인 제시

○ 5~50인 미만 규모 중소기업의 인사노무제 개선 지원체제 마련

- 중소중견기업 인사노무제도 정비를 위한 중장기 지원제도 마련하고 실질적 근태관리를 위한 출퇴근관리 필요
-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주 52시간 근무제에 맞게 변경하고, 노동법에 맞는 인사노무제도 정비 필요

○ 업종별 세부 규모별 필요 가이드라인 제시

- 자동차 부품 업체 등의 경우 교대제 개편등과 연계
- 계절별 시간(주야)별 업종 특성을 고려한 근무행태 등 52시간 운영 가이드라인 제시

▌탄력 및 선택근로 제도의 효과적인 활용

○ 유연근로제 활용 확대,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고, 출퇴근 시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도 3개월로 확대 방안 활용

※ 계절적 수요, 날씨 등 시간을 고려한 기업운영방안 마련. 계절적 수요(빙과류, 세탁)등의 특정업체를 제외하고 수요 예측이 어려워 소규모 기업들은 실제적으로 탄력근로제 활용도가 낮음

※ 주당소정근로시간은 최대 52시간 : 사례 (월)11 + (화)11 + (수)10 + (목)10 + (금)10 = 52시간

※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기간에 8시간 이상 근무를 가능하게하고, 덜 바쁜 기간에 8시간 보다 적게 일해서 6개월 평균하였을 때 주당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임. 5~7월이 바쁘다면 5~7월은 소정근로를 10~11시간씩 잡고, 8~10월에는 6~7시간씩 잡아서 주당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52시간까지만 가능

▮ 지역별 업종별 52시간제 유예기간 필요

○ 근로시간 비례의 생산성 향상 제조업체(뿌리 산업)의 경우 유예기간 마련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도입 시기를 코로나19 종료 때까지 지연

○ 생산현장의 교대제 개편 불가피하고, 사출금형, 주조, 정밀가공 등 뿌리산업과 기초공정기술 분야는 대체 근무자를 찾기 어려운 만큼 52시간 시행 유예기간 마련 필요

※ 주 52시간 적용을 위한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한 추가 고용을 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위 산업특성상 물량 변동이 극심해 대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 52시간제 시행시 실질임금 감소로 근로자 반발 등 애로사항이 있음

- 현행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한시적으로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허용한 조치를 50인 미만 사업장 까지 확대 하는 등 유연한 근로시간제 마련

※ 구미국가산업단지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1천755곳으로 전체의 89%이상 차지. 구미상공회의소의 지난 2021년 1월 구미지역 제조업체 대상 의견조사에서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71.7%가 경영애로가 발생한다고 답변

○ 특히 노사합의에 따라 필요한 경우 52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정당한 절차에 따라 노사합의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초과 근로시간 상한 규정)

3. 제조업 : 제조업 경기 회복신호 진단과 방향

〈연관 검색어 : 제조업, 경기 회복, 원자재 가격, 기업 채산성〉

▌현황

○ 국내 제조업 경기 회복세 전망

- 두 달 연속 하락세였던 국내 제조업 경기가 내달 상승세로 전환될 전망
- 산업연구원은 6월 제조업 분야 업황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4]를 133으로 전망
- 전월 대비 기준 3개월 만에 상승세 전환이 예측(4월 : 135, 5월 : 124)
- 내수 및 수출 부문 또한 상승 전망

○ 주요 산업 부문별 상승 기대

- ICT 부문 : 135로 전망(3월 139, 4월 132, 5월 131), 4개월 만에 상승 예견
- 소재 부문 : 131로 전망(4월 129, 5월 125), 3개월 만에 상승 전망
- 장비 부문 : 133으로 전망(4월 145, 5월 123), 3개월 만에 상승 전망
- 세부 업종별로는 반도체(181)와 철강(164), 조선(148), 섬유(144) 등 100을 상당 이상 상회, 자동차는 전월 108에서 119, 기계는 122에서 137
- 반면, 디스플레이와 가전은 각각 전월 132에서 122, 138에서 131을 보이며 하락세

	업 황	내 수	수 출	생산수준	투자액	채산성
제조업 전체	133	125	134	121	124	116
반도체	181	169	185	158	162	181
디스플레이	122	113	130	117	117	130
전 자	115	102	124	102	111	91
(휴대폰)	107	83	110	97	103	87
(가 전)	131	138	150	113	125	100
자동차	119	131	122	108	128	114
조 선	148	120	124	108	124	96
기 계	137	126	137	115	122	100
화 학	100	109	114	123	114	100
철 강	164	150	121	136	129	150
섬 유	144	133	150	150	117	111
바이오/헬스	125	125	140	125	120	120
ICT부문	135	123	142	121	126	125
장비부문	133	126	127	110	125	105
소재부문	131	128	128	135	119	117

: 115 이상, : 100~115 미만, : 85~100 미만, : 85 미만

자료 : 산업연구원

▲ 업종별 2021년 6월 경기 전망

▌영향

○ 제조업 경기 회복에 따른 코스피 상장사 1분기 실적 최대 기록

- 상장사 매출 합계 538조 3,459억 원, 영업이익은 44조 3,983억 원 기록
- 전년 동기 대비 매출 9.08% 상승, 영업이익 131.73% 증가, 순이익 49조 1,074억 원으로 361.04% 급증
- 특히 화학, 철강, 정유, 자동차 등 주력제조업 분야의 실적 개선
-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라 경기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경기민감업종의 실적 개선세 뚜렷

○ 대구지역 역시 올 2/4분기 경기전망을 호조세로 예상

- 2/4분기 경기전망 조사결과 제조업 BSI(경기실사지수)[5] 전망치는 127, 건설업 88
- 제조업 전망치(127)는 전분기(114) 대비 13p 상승한 수치이며, 2009년 3/4분기 이후 8분기 연속 기준치를 넘는 수치
- 반면, 건설업의 경우 4분기 연속 부진

4) PSI는 각 항목별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산식에 따라 정량화된 수치로서 0~200의 범위로 집계되며, 100을 기준으로 이상이면 전월 대비 개선 의견이, 미만이면 악화 의견이 많다는 것을 의미

5) BSI는 100을 기준으로 100 초과일때는 호전으로 표시한 업체가 악화(하락, 감소)로 표시한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내고, 100미만일 때는 그 반대



자료 : 대구상공회의소

▲ 대구 지역기업 BSI 추이

- 업종별로는 자동차부품이 139로 가장 높은 전망치 기록, 종이·인쇄(130), 전기·기계장비(129), 섬유·의복(126), 금속·가공(122), 화학·고무 및 전자·통신(각각 113), 비금속광물(100), 식료품·음료업 (89)

▮ 진단과 방향

○ 제조업 원자재 값 급등

- 제조업 경기 회복 신호와 주력산업의 상승세에도 불구,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우려
- 북아프리카 및 중동사태로 인한 원유가격 등 국제 원자재가격의 가파른 상승세
- 철광석, 구리, 원유, 목재, 식량 등 제조업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업들의 생산 원가에 부담으로 작용(철광석 159.3%, 구리 96.7%, 원유 148%, 알루미늄 68.8% 상승)

○ 제조기업 채산성 악화 우려

- 물류비 급등, 주52시간제 도입,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어려움 지속
- 중간 하청업체 비중이 높은 지역 제조업 특성상 규제 혁신 및 지원, 수입관세 인하, 원자재 구매 금융지원 확대 등이 필요

○ 수록 내용 및 경북경제동향에 관한 문의는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 053-770-5068)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구 위 원 : 임규채, 김용현, 최재원

전 문 위 원 : 한장협

연 구 원 : 이승아, 박효찬

○ 매월 발표되는 경북경제동향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및 대구경북연구원 홈페이지 정기간행물 경제동향분석에 제공되고 있습니다.